

FAO, 식량안보 특별프로그램 확대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2004년 9월 28일 식량안보관련 특별프로그램(Special Programme for Food Security, SPFS) 발표했다. 식량안보관련 특별프로그램은 개도국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빈곤국가(low-income food deficit countries, LIFDCs)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이들 국가의 식량안보 확보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FAO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반 아래 식량생산의 변동 정도를 줄이고, 사람들이 식량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의 활동계획(Plan of Action)의 연장선이다.

2004년 9월 28일은 식량안보관련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FAO 본부에서는 선도적인 농업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심사위원단이 회동을 가졌다. 이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식량안보관련 특별프로그램 위원단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 논의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식량안보문제와 관련해서 FAO 의장에게 조언을 하였다. 식량안보 특별프로그램의 목적은 세계 최빈국들의 식량안보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식량증산, 식량에 대한 접근개선,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에 농민이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원단은 올 해 회의에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보고하였다. 식량안보관련 특별프로그램은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인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은 현재 28개 나라가 시행 중이다. ‘남남프로그램’은 보다 발전된 선진국 간의 협력을 말하며,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기술자 1,0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1. 새로운 방향

위원단은 지난 2, 3년 동안에 많은 나라가 그들의 식량안보관련 특별프로그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적·재정적으로 헌신하였음을 인정했다. 식량생산과 접근에 관련한 식량안보 불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나라가 식량안보관련 특별프로그램을 시험적 사업에서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국가 중 24개국은 기아를 줄이기 위해 현재에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18개국이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18개국이 공식적으로 재정적·정치적 확대를 하겠다고 언급할 때에만 가능하다.

다음은 FAO의 현장활동분과장(Director of Field Operations Division) 맥밀란(Andrew MacMillan)의 발언이다. “많은 나라에서 이 프로그램은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시험 단계의 프로젝트는 규모가 작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이 직면한 실제 문제는 매우 방대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단은 프로젝트를 실천할 정치적 의지와 행동이 확실할 경우, 아직 시험 단계에 남아있는 60~70개 국가에서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단은 식량안보관련 특별프

로그래의 계획과 시행을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의 경우에도 시험단계 프로그램을 선행하는 것 보다 곧바로 전국단위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착오를 겪을 위험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2. 양방향 접근(twin-track approach) 방법

회의 참가자들은 양방향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방향 접근이란 소규모 농민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향상을 주기 위한 노력과 농가 안전망(safety net)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초등학교 점심급식 프로그램과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식량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만성적으로 식량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두 프로그램이 음식을 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는 에이즈로 홀로 된 과부나 고아, 노령 인구,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프로그램은 국내 농산물 시장 활성화를 돕습니다.” 이것은 노벨상 수상자이며 ‘녹색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볼로그(Norman Borlaug) 박사가 위원단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다.

맥밀란은 식량안보를 향상시켜주는 두 접근방법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는 특히 같은 공동체 내에서 두 접근방법이 시행될 때에 상호보완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식량안보 향상, 특히 식량에너지 소비향상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조치는 UN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빈곤감소, 보건, 교육을 주요 부문으로 삼고 있다.

맥밀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기아를 줄이는 데서 이 양방향 접근을

어떻게 더 큰 규모로 확대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일단 큰 규모라고는 하지만 최빈개도국에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런 최빈개도국이야말로 식량안보가 매우 불안정하며, 국내 시장은 좁고, 공공 시설은 부족하고, 재정적 자금줄—국내에서든 해외에서 기부를 받든—은 끔찍할 정도로 열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3.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전

볼로그 박사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발표를 하였다. 위원단은 기반이 되어 주는 천연자원을 복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천연자원 관리에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자원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1) 아프리카 복합 토양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프리카의 토양은 녹색혁명이 성공한 아시아 등지의 토양에 비해 노후하였다.
- (2) 비료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의 비료소비는 타국 농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3) 환경보전 농업을 촉진시키고 질소를 고정시키는 콩류를 심는다. 작물에 친환경적인 거름을 주며 관개용수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토양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토양조사에 있어서 이런 점들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모두가 동의하였다. 그리고 FAO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위원단은 비료를 농작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볼로그 박사의 말이다. “실질적으로 지역과 농업이 발전하려면 기반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반시설에는 도

로, 전력, 용수 등이 포함됩니다. 아프리카의 기반시설이 나아지지 않는 한, 농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노력은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만족시키면서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4.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맥밀란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사용했거나 정부개입 정도가 너무 작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이 1996년부터 기아를 근절시키기 위해 행한 노력이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1996년은 세계식량정상회의에 참여한 각 국 정부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인구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겠다고 합의한 해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몇몇 국가가 기아를 빠른 시간 내에 근절시키는 데 성공한 사실은 아직도 정상회의의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용기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길으로 보기에 끝이 없을 거 같은 논쟁에서 벗어나 기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아를 근절시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출처: FAO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